

氣口九道脈에서 寸部와 尺部에서 나타나는 左右彈脈에 관한 研究 - 衛氣와 陽蹻脈·陰蹻脈의 聯關性を 中心으로 -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A Study on Left & Right Tan pulse(左右彈脈) at Chon(寸) and Cheok(尺) in Qikooujudamai(氣口九道脈) Diagnosis -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Wi-gi(衛氣) with Yang-gyo pulse(陽蹻脈) & Yin-gyo pulse(陰蹻脈) -

PARK Geon-woo, HWANG Min-sub, YOON Jong-hwa
Dept. Acupuncture & Moxibi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is to find the meaning of Tan pulse at Chon and Cheok area due to pathological situation at Yang-gyo vessel & Yin-gyo vessel in Qikooujudamai Diagnosis.

Methods : In terms of Qikooujudamai, the position to diagnose the Yang-gyo vessel & Yin-gyo vessel is Chon and Cheok position and the pulse is Tan pulse. To find the meaning of Tan pulse, wi-gi was analyzed. Then the correlation between Yang-gyo vessel & Yin-gyo vessel with wi-gi was analyzed to find the meaning of Tan pulse.

Results & Conclusion : Yang-gyo vessel & Yin-gyo vessel have close connection with Wi-gi and its rise and fall is expressed by sleep. The Tan pulse means that Yang-gyo vessel & Yin-gyo vessel is in pathological situation by Wi-gi. By knowing the Qikooujudamai's meaning, we can use acupuncture treatment and medicine more precisely.

Key words : Eight extra meridians, Qikooujudamai diagnosis, Yang-gyo vessel, Yin-gyo vessel, Wi-gi

I. 서론

奇經八脈은 『素問』, 『靈樞』에 陽維脈, 陰維脈을 제외한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蹻脈, 陽蹻脈 6개의 奇經이 기술되어 있고, 『難經·27難』에 陽維脈, 陰維脈을 포함하여 奇經八脈의 순행 및 병증 등이 기술되어, 奇經八脈에 대한 이론

적인 체계가 完備되었고,¹⁾ 明代에 李時珍이 『奇經八脈考』에서 奇經八脈에 대해 논술하여 奇經八脈에 대한 醫論을 체계화시켰다.

奇經八脈의 병증 진단법은 『難經』에 언급이 없고, 『脈經·卷10 手檢圖』에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이 기재되어 있으며, 王²⁾은 “氣口一脈은 九道로 나뉘는데, 이를 이용함으로써 奇經뿐만 아니라 正經 또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李³⁾는 “臟腑의 脈은 寸·關·尺의 正位, 浮·中·沈에

접수 ▶ 2023년 03월 06일 수정 ▶ 2023년 04월 27일 채택 ▶ 2023년 04월 10일
교신저자 ▶ 윤종화,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54-770-1254 Fax : 054-770-1500 E-mail : item0220@daum.net

1)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나타난 彈脈의 의미에 관한 고찰 - 帶脈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35(1):34.

2)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醫學窮源集 卷2』.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2641.

定體, 弦·鉤·毛·石의 定形이 있는 반면, 奇經은 형상과 병증도 다르고 ... 診脈의 방법, 진단과 치료가 구별된다.”고 하였고, 潘4)은 “奇經八脈의 병리적 상황에 나타나는 脈象은 浮, 牢, 緊, 左右彈, 斜上 등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靈樞·邪客』에서 음식은 胃에 들어가면 糟粕, 津液, 宗氣가 나온다고 하였고5), 津液 중 맑은 것은 營氣, 濁하고 慄疾한 것은 衛氣가 되며6), 『靈樞·衛氣行』에서 “衛氣는 위에서 下로, 下에서 上으로 순행한다.” 하였고7) 王8)은 “衛氣는 『靈樞·經脈』의 營氣循環의 脈外를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衛氣의 독자 순행노선으로 운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莫9)은 “津은 衛氣를 따라 運行하며, 衛氣는 『靈樞·經筋』의 十二經筋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熊10)은 “衛氣는 剛維群動과 知覺運動의 기능이 있으며 ... 寤寐에 있어 經絡의 출입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靈樞·大惑論』에서 “衛氣가 陽分에 머무르면 陽氣가 충만해지고 이로 인해 陽蹻脈의 脈氣가 충만해지고, 衛氣가 陰分에 머무르면 陰氣가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 陰蹻脈의 脈氣가 충만해진다 ... ”고 하여 衛氣가 眼開合, 臥起 및 寤寐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고11), 『靈樞·邪客』에서 “衛氣는 晝夜의 운행이 다르며, 陽分에서 陰分으로 순행할 때에는 항상 足少陰의 分間으로 入하여 순행한다”고 하였다.12) 이를 보면, 陰·陽蹻脈은 衛氣의 陽分과 陰分の 순행으로 인한 寤와 寐의 生理 및 病理와 연관되어 있다고 思料된다.

奇經八脈 중 陽蹻脈과 陰蹻脈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로 현재까지 많지 않으며, 이 중 병증에 관한 연구는 陽蹻脈과 陰蹻脈의 所屬穴들의 主治症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 관한 연구13), 수면과 陰蹻脈, 陽蹻脈을 연관 지어 그 상대성에 대한 연구14)가 있다. 그러나 左右彈의 脈象이 寸部에 나타나면 陽蹻脈, 尺部에 나타나면 陰蹻脈인 氣口九道脈診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國外로는 于志亮 등의 “氣口九道脈”의 溯源初探15)가 있는데, 이는 氣口九道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언급할 뿐이다. 또한 成振鏞 등의 ‘奇經脈診法初探16)는 奇經八脈 病證 진단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論者는 陰·陽蹻脈이 衛氣순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氣口九道脈을 연구한 醫家들의 견해를 같이 살펴보고, 氣口九道脈에서 左右彈脈이 寸部에 나타나면 陽蹻脈, 尺部에 나타나면 陰蹻脈의 病態가 발현된 것으로 진단하며17)18), 이와 같은 氣口九道脈의 寸과 尺部の 脈象의 변화는 陰·陽蹻脈이 衛氣를 晝夜로 순행시켜 나타나는 寤寐의 生·病理와 연관성이 있음을 연구하여 보고한다.

II. 본론

1. 陽蹻脈

『難經·28難』에서 “陽蹻脈은 跟中の 申脈穴에서 시작하여 外踝를 순행하여 올라가며 風池로 들어간다.”19)고 陽蹻脈의 순행을 밝혔다. 『奇經八脈考』에서는 “陽蹻脈은 足太陽의 別脈으로 跟中에서 시작되어 外踝 下方의 足太陽經에 속한 申脈穴로 나가고, 外踝 뒤에서 跟部를 둘러싸고 ... 任脈과 會合하고 目內眥에 도달하여 睛明에서 手足太陽, 足陽明, 陰蹻, 陽蹻의 五脈이 會合한다.”고 하여 순행을 구체화하였다.20)

衛氣가 陽分을 순행하는 經路와 연관을 지으면, 衛氣가

3) 李延星 輯著. 『脈訣彙辯』.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104.

4) 潘楫 著. 『醫燈續焰』.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286.

5)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326.

6)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136.

7)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361. “衛氣之在于身也, 上下往來不以期...”

8) 王邦傳 纂注. 『珍本醫書集成·卷一·脈訣乳海』.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635-636.

9) 莫枚士 述. 『研經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4.

10)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11)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387.

12)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326.

13) 박찬열, 안병철, 최도영. 「陰, 陽蹻脈과 陰, 陽維脈各 經穴의 主治病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5;12(2):287-315.

14) 이경민, 김태희, 정성엽, 조운철, 김철수. 「陰蹻脈, 陽蹻脈과 睡眠과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대한추나의학회지. 2002;3(1):141-151.

15) 于志亮, 杨 碩, 杨孝芳. 「“氣口九道脈”의 溯源初探」. 中西醫結合心血管病杂志. 2018;6(34):27.

16) 成振鏞, 李曉君, 郭霞珍. 「奇經脈診法初探」.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0;17(6):24-26.

17) 李中梓. 『診家正眼』.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93.

18)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學苑出版社. 2010:34.

19) 金鏡수, 송지역 譯. 『國譯 難經』. 서울:집문당. 2016:140.

새벽까지 陰分을 돌아 精明穴을 통해 나와 눈을 뜨고, 陽蹻脈으로 하여금 모든 陽經에 衛氣가 순행하게 한다. 즉 陽蹻脈은 衛氣로 하여금 눈을 뜨는 것에 關與를 한다²¹⁾.

陽蹻脈의 病證으로는 『難經·29難』에서 ‘陰緩而陽急’²²⁾이라 할 뿐, 구체적인 病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후 『奇經八脈考』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苦腰背痛, 癩癩, 惡風偏枯, 癆瘵身體強, 惡寒, 目不寐 등의 병증을 언급하였다.²³⁾

『脈經』은 氣口九道脈에서 前部가 左右彈하면 苦腰痛, 癩癩, 惡風, 偏枯, 僵仆羊鳴, 瘰, 皮膚身體強의 병증이 나타나고, 이는 陽蹻脈의 병증이라고 하였다.²⁴⁾

2. 陰蹻脈

『難經·28難』에서 “陰蹻脈은 跟中의 照海에서 시작하여 內踝를 순행하여 올라가며 咽喉에 이르러 衝脈과 서로 통한다.”²⁵⁾고 하여 陰蹻脈의 순행을 밝혔다. 『奇經八脈考』에서는 “陰蹻脈은 足少陰經의 別脈으로 跟中에서 시작하는데, 足少陰經과 같이 照海穴을 순행하고 ... 上行하여 目內眥에 속하고 手足太陽, 足陽明, 陽蹻과 本脈의 5脈이 精明穴에서 會合하여 上行한다.”²⁶⁾고 하였다.

衛氣가 陽分을 순행할 때는 깨어 있지만 밤에는 陰蹻脈을 통과하여 陰臟으로 다시 합하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야간에 몸의 안정된 수면 상태를 지켜준다. 즉, 陰蹻脈은 衛氣로 하여금 눈을 감는 것에 관여한다.²⁷⁾

陽蹻脈과 마찬가지로 陰蹻脈의 병증으로는 『難經·29難』

에서 ‘陽緩而陰急’²⁸⁾이라 할 뿐, 구체적인 병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후 『奇經八脈考』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苦癩癩寒熱, 皮膚陰痺(全身의 皮膚가 疼痛, 腫大, 重着하는 症狀), 少腹痛, 裏急, 腰及臍下相連陰中痛, 男子陰疝, 女子漏下不止, 發熱 등의 병증을 언급하였다.²⁹⁾ 『脈經』은 氣口九道脈에서 後部가 左右彈하면 苦癩癩, 寒熱, 皮膚強의 병증이 나타나고 이는 陰蹻脈의 병증이라고 하였다.³⁰⁾

3. 衛氣

1) 衛氣의 生成 및 機能

衛氣에서 ‘衛’는 氣가 밖에서 지키는 것처럼 兵家가 扈衛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衛’라고 하고, 衛氣는 人氣라 名命하고, 呼吸의 天氣와 飲食의 地氣의 所生으로 天氣는 無形으로 至剛하여 衛氣는 天氣를 兼하므로 性情이 慄悍하다³¹⁾. 그리고 衛氣는 命門에서 根源하고 三焦로 暢達하며 標悍滑疾하다³²⁾.

衝脈은 臍下 丹田 즉 命門에 뿌리를 두고 있다³³⁾. 飲食이 胃에 들어오면 衝脈의 後天의 宗氣와 先天의 眞氣와 합한 和緩한 衛氣가 순식간에 腹內로 주입된다³⁴⁾. 그리고 『靈樞·邪客』에서 “飲食이 胃內로 들어오면 糟粕, 津液, 宗氣가 나온다.”고 하였다³⁵⁾. 津液 중 맑은 것은 營氣, 濁하고 標疾한 것은 衛氣가 된다³⁶⁾. 津은 衛氣를 따라 운행하며³⁷⁾, 衛氣는 肺에서 通솔되고 先天에서 化生한 것이다³⁸⁾.

衛氣는 體와 用이 있으며, 體는 衛氣의 根本으로 『難經·

20)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35.

21)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51-53.

22) 金경수, 송지역 譯. 『國譯 難經』, 서울:집문당. 2016:144.

23)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40.

24)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508.

25) 金경수, 송지역 譯. 『國譯 難經』, 서울:집문당. 2016:140.

26)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35.

27)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42.

28) 金경수, 송지역 譯. 『國譯 難經』, 서울:집문당. 2016:144.

2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40.

30)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508.

31)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32) 周學海 著, 白上龍 評註. 『評註讀醫隨筆』, 서울:집문당. 2014:11.

33)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筋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45-546. “冲脉之根爲命門之處, 此即腎間動氣之居也. 冲脉之根爲命門之處, 非冲脉之根即命門也.”

34)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349. “飲食入胃, 冲脉流布, 故頃刻周于腹內 ... 冲氣胃之氣冲, 後天宗氣之海, 并少陰腎而行, 合先天眞氣也”

35) 김기욱, 장재석 共譯. 『뫓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326.

36) 김기욱, 장재석 共譯. 『뫓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136.

37) 莫枚士 述. 『研經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4.

38) 唐宗海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宗海醫學全書』, 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26.

八難』의 腎間動氣 즉 丹田眞陽이 곧 衛氣이다. 衛氣의 用은 다양한 작용이 衛氣의 枝葉이다³⁹⁾. 先天의 腎間動氣, 즉 原氣는 衝脈을 통하여 발휘되며, 衝脈의 氣는 衝脈所屬의 經穴 즉, 氣穴을 통해 陽明과 연결되며, 上焦에서 宗氣를, 中焦에서 營氣를, 下焦에서 衛氣를 생성하는 데 關여한다⁴⁰⁾.

衛氣는 剛維群動과 知覺運動을 주관하며⁴¹⁾, 衛氣가 寤時에 陽經을 순행하면 五官을, 手經으로 가면 손을, 足經으로 가면 발을 사용한다. 臟으로 가면 慧가 生하고, 腑로 가면 음식을 納入한다. 寐時에 衛氣가 陰經으로 순행하면 五官, 손, 발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智慧를 사용하지 않고, 飲食을 요구하지도 않는다.⁴²⁾

또, 衛氣가 左右를 순행할 시에는 左右가 交通하지 않는다. 衛氣가 陽蹻와 太陽經으로 부터 出할 때에는 左右가 동시에, 兩目과 手足, 五官이 先後가 없다. 衛氣가 陰蹻와 少陰으로 入할 때에도 兩目이 동시에 合하고, 手足, 五官의 靜態에도 先後가 없이 동시에 入한다⁴³⁾.

이를 바탕으로 衛氣의 기능을 종합하면, 衛氣는 첫째, 衛氣는 剛維群動과 知覺運動을 주관하며 寤寐에 있어 經絡의 出入을 주관한다. 둘째, 三焦를 調節하고 六腑로 運行하여 飲食을 納入하여 行津化液하고 大·小便의 開合을 조절한다. 셋째, 衛氣는 上焦의 宗氣와 合하여 五臟으로 순행하여 慧와 情緒를 발현한다. 넷째 皮膚, 肌肉 및 網膜을 溫養하여 따뜻하게 데워주고, 充實하게 하고 汗구멍의 開閉를 조절한다.⁴⁴⁾⁴⁵⁾⁴⁶⁾

2) 衛氣의 순행

『靈樞·衛氣行』에서 “衛氣는 上에서 下로, 下에서 上으로 순행한다.” 하였고⁴⁷⁾, 그리고 王⁴⁸⁾은 “衛氣는 『靈樞·經脈』의 營氣循環의 脈外를 순행하는 것이 아니고, 衛氣의 獨自

의 순행노선으로 運行한다.” 하였다.

『靈樞·邪客』에서 “衛氣는 ... 성질이 날래고 빠르기 때문에 먼저 四肢의 分肉과 皮膚 사이로 가서 쉬지 않고 순행한다”고 하여 衛氣의 運行特性을 밝혔다. 또 “晝間에는 陽分에서 運行하고 夜間에는 陰分에서 運行한다”고 하여 晝間과 夜間의 運行이 다르다고 하였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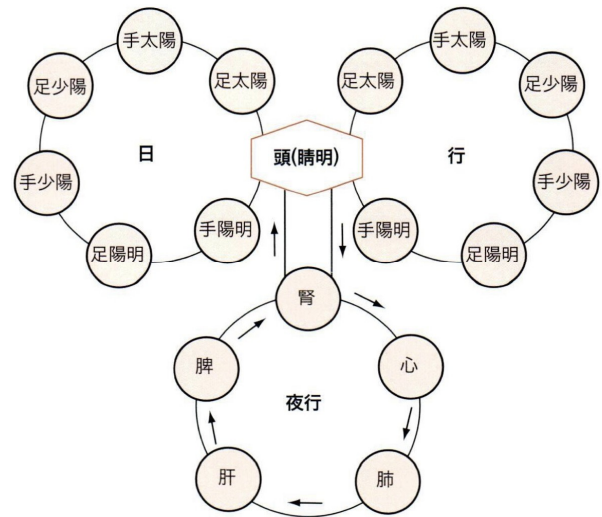


그림 1. 衛氣의 순행⁵⁰⁾

衛氣는 寤寐에 있어 經絡의 出入을 주관한다.⁵¹⁾ 衛氣는 陰分을 25바퀴 돌고 陽分을 25바퀴 도니, 낮과 밤으로 다르게 나뉜다.⁵²⁾

『靈樞·口問』에서 “衛氣가 陰에 들어가면 잠을 자고, 陽에 들어가면 깬다. 衛氣는 낮에 陽으로 순행하고 밤에는 陰으로 순행하고, 陰은 밤을 主官하므로 밤에 잠을 자게 된다.” 고 하였다.⁵³⁾

『靈樞·衛氣行』에서 衛氣의 순행경로는 “晝間에는 날이 밝으면서 陰氣가 다하여 陽氣가 눈으로 나오는데, 눈을 뜨

39)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737.

40) 王德深 著. 『中國鍼灸穴位通鑑』. 青島:青島出版社. 1994:59.

41)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737.

42)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737.

43)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737.

44) 辛홍목 지음. 『장부경락학』. 서울:청흥. 2016:47.

45)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737.

46)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237.

47)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361. “衛氣之在于身也, 上下往來不以期...”

48) 王邦傳 纂注. 『珍本醫書集成·卷一·脈訣乳海』.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635-636.

49)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326.

50) 辛홍목 지음. 『장부경락학』. 서울:청흥. 2016:120.

51) 裘莊元 輯, 熊芬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學出版社. 1998:737.

52)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136.

53)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176.

면서 衛氣는 머리로 올라가 목을 타고 足太陽經으로 내려가 새끼발가락 끝에 이르고 ... 陰分에 주입되었을 때는 足少陰腎經에서 腎으로 注入되고, 腎에서 心, 心에서 肺, 肺에서 肝, 肝에서 脾, 脾에서 다시 腎으로 주입되어 한 바퀴를 돈다.”고 하였다.⁵⁴⁾

衛氣는 낮에는 陽分을 순행하지만 陰分으로도 간다. 하지만 낮에는 陰分으로만 갈 뿐, 五臟에는 들어가지 않는다.⁵⁵⁾ 또한, 『靈樞·衛氣行』에서 “태양이 1宿를 운행하는 동안 衛氣는 세 陽經과 陰分을 순행한다.”고 하여 그 시간까지 밝혔다.⁵⁶⁾

衛氣가 陽分에서 陰分으로 순행할 때 陰驕脈이 작용하고, 陰分에서 陽分으로 순행할 때 陽驕脈이 작용을 한다.⁵⁷⁾

陰·陽驕脈의 脈氣가 經脈內外를 서로 循環한다⁵⁸⁾. 陰·陽驕脈은 衛氣를 脈外로 散布하여 순식간에 도달하게 하고, 脈外의 氣血은 驕脈으로 하여금 脈中을 還入하게 하여, 內外의 氣血을 交通하여晝·夜間으로 순환시킨다⁵⁹⁾⁶⁰⁾. 이는 氣血의 저장과 分注 및 病邪의 滿溢과 受納하는데 奇經이 설정되는 緣由에 符合한다.

4. 陰·陽驕脈과 衛氣와의 관계

陰·陽驕脈의 ‘驕’字는 矯擧의 의미를 가져, 그 脈은 剽悍하여 衛氣의 性情과 같으며⁶¹⁾, 下에서 上으로 行한다는 意義도 있다⁶²⁾. 또 兩驕脈은 人身의 絡脈 중의 氣血을 身體의 側面으로 순행을 시킨다⁶³⁾.

이는 少陽, 厥陰의 性情과 같고, 二脈은 筋을 主官하며, 또한 陰·陽驕脈도 筋을 主官한다⁶⁴⁾. 그리고 『靈樞·經筋』에서 足少陽之筋은 驕脈과 병행하며, ‘足太陽之筋’으로 始作하는 『靈樞·經筋』의 十二經筋은 衛氣의 운행과 연관되어 있다⁶⁵⁾.

陰·陽驕脈은 衛氣의 순행을 위해 작용하며⁶⁶⁾⁶⁷⁾, 手足으로 신속하게 氣를 운행하여 手足의 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순식간에 四肢와 頭面으로 氣를 주행시키며⁶⁸⁾, 陽驕脈은 몸의 左右陽氣의 운동에, 陰驕脈은 몸의 左右陰氣의 운동에 관여한다⁶⁹⁾⁷⁰⁾.

陽驕脈은 肌肉之上에 있어 六腑를 관통하여 表를 주관하고⁷¹⁾, 六腑를 貫通함에 있어 手足三陽經을 交會하면서 연계되지 않는 곳이 없다⁷²⁾. 陰驕脈은 肌肉之下에 있어 五臟을 관통하여 裏를 주관하고⁷³⁾, 五臟를 貫通함에 있어 手足三陰經을 交會하면서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衛氣는 剛維群動과 知覺運動을 主官하며, 衛氣가 陽驕와 太陽經으로 부터 出, 陰驕와 少陰으로 入할 때에 동시에 하며, 兩目과 手足, 五官의 先後가 없다. 또 左右의 순행시 동일하게 出入한다⁷⁴⁾.

『靈樞·大惑論』에서 “衛氣가 陽分에 머무르면 陽氣가 充만 해지고, 이로 인해 陽驕脈의 脈氣가 充만해진다. 衛氣가 陰分에 머무르면 陰氣가 充만해지고, 이로 인해 陰驕脈의 脈氣가 充만해진다.”고 하였으며⁷⁵⁾, 陰驕脈과 陽驕脈의 陰陽은 눈에서 交叉하고, 陰陽의 盛衰에 따라 눈을 뜨거나 감는다⁷⁶⁾.

54)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359, 360.

55) 盧敬之 著. 『脈學指南』. 서울:도서출판 一社. 1991:42.

56)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363.

57)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42-51.

58) 張志聰 著.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447.

59) 張志聰 著.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446.

6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1-572.

61)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73.

62) 張志聰 著.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447.

63) 葉霖 著. 吳考槃 點校. 『難經正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49-50.

64)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2.

65) 莫枚士 述. 『研經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4.

66)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醫學窮源集 卷2』.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2640.

67)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68)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30. “驕之爲言, 橋也, 通濟迅速(上通下濟, 迅捷快速) 而手足之氣運行不滯也 ... 爲之二驕, 以頃刻周行于四肢頭面”

6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4.

70)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4.

71)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73.

72)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30.

73)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173.

74)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75)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387.

76)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민문화사. 2014:148.

衛氣는 寤寐에 있어 經絡의 出入을 主官하며⁷⁷⁾, 寤時에는 衛氣가 陽經을 행하여 五官, 手, 足を 使用하고, 臟의 生慧, 腑에 음식을 受納한다. 寐時에는 衛氣가 陰經을 행하여 五官, 手, 足, 慧 및 飲食도 필요하지 않다⁷⁸⁾.

한편 衛氣가 陰分과 陽分을 순행함에 장애가 발생하여, 陽氣가 盛하면 陽蹻脈이 盛하여 不眠하고, 陰氣가 盛하면 陰蹻脈이 盛하여 多眠하게 되는 것이다.⁷⁹⁾ 이를 보면, 陰·陽蹻脈과 衛氣와의 관계는 寤寐 즉 睡眠과 연관되어 있다.

病證의 觀點으로 보면, 『靈樞·經筋』에서 “經筋之病, 寒則 反折筋急, 熱則筋弛縱不收”라 하였고⁸⁰⁾, 筋急과 筋弛縱 및 陰·陽蹻脈은 筋을 주관하며, 陰緩而陽急과 陽緩而陰急의 緩急으로 나타난다⁸¹⁾.

5. 氣口九道脈

氣口九道脈은 『脈經·卷10·手檢圖』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고, 明代에 『奇經八脈考』에서 引用하였고, 醫家들은 九道의 脈診法을 인지할 수 없었고, 奇經八脈의 醫論도 활용할 수 없었다⁸²⁾.

氣口의 平常脈 즉 臟腑의 脈은 寸·關·尺의 正位, 浮·中·沈에 定體, 弦·鉤·毛·石의 定形이 있다. 반면, 奇經脈은 形狀과 病證도 다르고, 診脈의 方法도 달라서, 진단과 치료가 구별된다⁸³⁾.

氣口九道脈의 九道 즉 前·後·左右와 上·下·中央에서 奇經八脈의 病理的 상황을 診斷하는 氣口九道脈은 常脈과는 차이가 있는 특수한 脈象, 즉 浮, 牢, 緊, 左右彈, 斜上 등에서 病邪의 所在을 찾는 脈診法이다⁸⁴⁾⁸⁵⁾.

奇經八脈은 十二正經에 約束되어 있어, 邪氣가 十二經에

들어와도 넘치지 않으면 奇經에는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邪氣가 넘쳐야만 奇經에 影響을 주고 奇經의 病證과 脈象이 나타난다.⁸⁶⁾⁸⁷⁾. 또 常脈과 다른 특수한 脈象이 나타나면 奇經脈에서 求해야 한다고 하였다⁸⁸⁾.

또 氣口一脈은 九道로 나뉘는데, 이를 이용함으로써 奇經 뿐 만 아니라 正經 또한 診斷을 할 수 있다고 하여 氣口九道脈의 運用範圍를 확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⁸⁹⁾.

『脈經·卷10·手檢圖』에서 말하는 前은 寸部, 中은 關部, 後는 尺部, 外는 浮, 內는 沈에 該當한다. 氣口九道脈에서 나타나는 經絡은 『脈經·卷10·手檢圖』⁹⁰⁾와 『脈經·卷2·平奇經八脈病第四』⁹¹⁾에 記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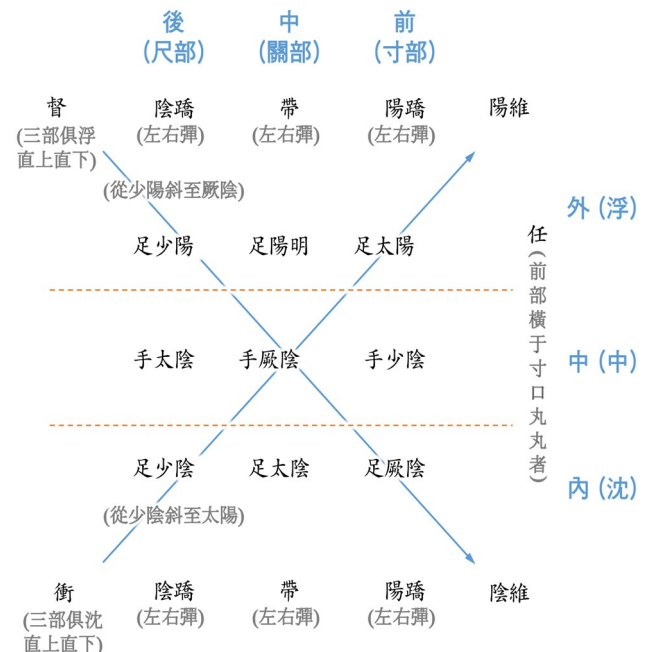


그림 2. 『脈經·卷10 手檢圖』의 脈診 部位 圖解⁹²⁾

77)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78)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79)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387.
 80)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125.
 81)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2.
 82)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4.
 83) 李延昆 輯著. 『脈訣彙辯』.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104.
 84) 潘楫 著. 『医灯續焰』.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286.
 85)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109. “陰陽交會 中有五部 前後左右 各有所主 上下中央 分爲九道 診之則知病邪所在也”
 86) 李濠 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此八脈之脈象, 病則見, 不病則不見”
 87)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點校. 『診宗三昧』.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15. “奇經又十二經之約束, 若臟氣安和, 經脈調暢, 八脈之形, 無從而見也”
 88)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點校. 『診宗三昧』.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15.
 89)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醫學窮源集 卷2』.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2641.
 90)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503.
 91)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73.
 92)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519.

한편 靑代의 周⁹³⁾는 “『脈經·卷10·手檢圖』의 九道の 法 즉 九侯에 足三陽과 手足三陰을 배속하고, 手三陽의 配屬이 없는 方法은 常法과는 特別한 差異가 있으며, 이는 古代의 失傳된 脈法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향후에, 氣口九道脈에서 九道の 經絡配屬의 原理 및 運用 하는 方法에 관한 研究는 필요할 것으로 思料된다.

6. 彈脈의 ‘彈’의 의미와 左右彈

‘彈’은 사전적으로 ‘탄알, 튀기다, 두드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⁹⁴⁾ ‘彈’이라는 脈象은 『素門·五藏生成論』에서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脈象을 大小, 滑澁, 浮沈으로 분류하고, 彈脈을 언급하여 病理的 狀況의 脈象으로 認識하였다⁹⁵⁾.

彈脈은 『脈經·卷一 脈形狀指下秘訣第一』의 二十四鍾의 脈象에 귀속되지 않았고, 또 28脈의 脈象에도 속하지 않는다⁹⁶⁾. 『脈經校釋』은 彈脈을 ‘手傳擊應’으로 나타나는 脈象으로 표현하였다.⁹⁷⁾

『脈理求真』에서 陽蹻의 脈을 左右彈浮緊細, 陰蹻의 脈을 左右彈沈緊細라 하였고⁹⁸⁾, 『脈簡補義』에서 “寒邪로 인한 緊脈 중 左右彈은 寒이 外部에 있고 內部에는 熱이 있을 때 나타난다. 內·外部에 寒邪가 있으면, 左右彈의 脈象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⁹⁹⁾.

『診家正眼』에서는 兩蹻脈의 左右彈을 緊脈의 象이라고 하였는데¹⁰⁰⁾, 周¹⁰¹⁾는 “奇經八脈에 나타난 寸·關·尺의 左右彈은 寒邪로 인한 緊脈과는 다르며, 여러 病因에 의해 氣結하고 不暢하여 나타나는 脈象으로 形象은 軟弱하지 않고, 強直한 脈象을 나타낸다. 즉 氣口九道脈의 左右彈은 寒邪로 인한 緊脈의 左右彈과는 證狀이 다르다.”고 하였다.

7. 衛氣의 晝夜순행과 寸 및 尺部の 左右彈脈

衛氣는 陽分을 순행할 때 睛明穴에서 나와 足太陽經을 시작으로 陽分을 순행하며¹⁰²⁾, 또한 陽蹻脈은 足太陽膀胱經의 別脈이다¹⁰³⁾.

陽蹻脈의 순행은 足外踝를 지나며, 足太陽經의 순행과 聯關되어 있다. 『身經通考』에서는 陽蹻脈은 風池穴로 들어가 머리에서 太陽에 이르므로 寸部에서 徵候가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⁰⁴⁾.

따라서 衛氣가 睛明穴에서 나오지 못하여 생기는 陽蹻脈의 病理的 狀況이 氣口九道脈의 寸部에서 左右彈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衛氣가 陰分에만 머무르면 陰氣가 充滿하고 이로 인해 陰蹻脈이 盛해지고, 衛氣가 陽分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陽氣가 盛해지고 눈을 뜨지 못하면서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이다.¹⁰⁵⁾

衛氣는 陰分을 순행할 때 足少陰腎經을 시작으로 陰分을 순행하며¹⁰⁶⁾, 또한 陰蹻脈은 足少陰腎經의 別脈이다.¹⁰⁷⁾

陰蹻脈의 순행은 足內踝를 지나며, 足少陰經의 순행과 聯關되어 있다. 『身經通考』에서는 陰蹻脈은 머리에는 이르지 못하여 尺部에서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⁰⁸⁾.

따라서 衛氣가 足少陰腎經을 통해 陽分으로 가지 못하는 陰蹻脈의 病理的 狀況이 氣口九道脈의 尺部에서 左右彈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고찰

『奇經八脈考』에서 “經脈에서 흘러서 넘치는 氣가 奇經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읊기며 灌溉한다. 안으로는 臟腑를 溫

93)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86.

94) (주)두산동아. 『동아백년옥편』. 서울:두산동아. 2011:573.

95)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소문』. 서울:법인문화사. 2014:83-84.

96) 李中梓. 『診家正眼』.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93.

97)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509.

98)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學苑出版社. 2010:34.

99)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50-551.

100) 李中梓. 『診家正眼』.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93.

101)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50-551.

102)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359.

103) 陳士鐸 著. 『外經微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1:28.

104) 李濬 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105)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387.

106)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360.

107) 陳士鐸 著. 『外經微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1:28.

108) 李濬 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養하고 밖으로는 腠理를 적셔준다.”고 하였¹⁰⁹⁾, 『脈簡補義·奇經八脈體用病機治法』에서 “冲, 任, 督의 三脉은 氣血의 海로서 氣血이 三脉에 먼저 貯藏하고 十二經으로 分注한다. 그리고 帶脈, 二蹻, 二維는 十二經이 滂霈하여 滿溢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였¹¹⁰⁾.

이를 비유하여 正經은 도랑과 같고, 奇經은 湖澤과 같다고 하였¹¹¹⁾ 또 奇經八脈의 病은 獨立의으로 發生하지 않고, 正經과 絡脈의 病이 유입되어 발현되고, 傳經이나 流注에 의한 轉變이 없다¹¹²⁾¹¹³⁾. 한편, 『脈簡補義·奇經八脈體用病機治法』에서 “奇經八脈은 十二經의 氣血을 貯蓄하는 淵海로서 十二經을 운행하는 중추적인 기능이 있다. 만일 十二經이 充滿壅實하면 氣機을 施轉하여 流動시키는 奇經八脈의 작용은 通靈하다.”고 하였¹¹⁴⁾.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은 『素門』, 『靈樞』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難經』에도 보이지 않으며, 『脈經·卷10 手檢圖』에 최초로 記載되어 있다. 그리고 明代의 『奇經八脈考』, 『醫宗必讀』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病證 및 脈診 方法에 關하여 記述되어 있고, 清代의 『身經通考』, 『醫編』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脈診 및 病證에 對해 解釋되어 있다.¹¹⁵⁾

氣口九道脈의 脈象은 奇經八脈에 病이 있으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¹¹⁶⁾ 平常의 脈과 다른 特殊한 脈象이 나타나면 奇經脈 즉 氣口九道脈에서 찾아야 한다¹¹⁷⁾. 따라서 氣口九道脈에서 寸部和 尺部에 左右彈脈이 나타난다는 것은 正經의 絡脈이 각각 陽蹻脈과 陰蹻脈으로 流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靈樞·衛氣行』에서 “衛氣는 上에서 下로, 下에서 上으로

순행하며, 순행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天의 二十八宿의 運行의 規律에 맞추어 推算하였¹¹⁸⁾. 그리고 王¹¹⁹⁾은 “衛氣는 『靈樞·經脈』의 營氣循環의 脈外를 순행하는 것이 아니고, 衛氣의 獨自의인 순행路線으로 운행한다.”고 하였¹²⁰⁾.

衛氣는 陰分을 25바퀴 돌고 陽分을 25바퀴 도니, 낮과 밤으로 다르게 나뉜다.¹²⁰⁾ 또 『靈樞·口問』에서 “衛氣가 陰에 들어가면 잠을 자고, 陽에 들어가면 깬다.”고 하였¹²¹⁾. 또한, 衛氣는 寤寐에 있어, 經絡의 出入을 주관한다¹²¹⁾.

그러므로, 衛氣는 陽分을 순행할 때 睛明穴에서 나와 足太陽經을 시작으로 陽分을 순행하며¹²²⁾, 陽蹻脈은 足太陽膀胱經의 別脈이다.¹²³⁾ 陽蹻脈의 순행은 足外踝를 지나며, 이는 足太陽經의 순행과 연관되어 있다.

『身經通考』에서 陽蹻가 風池穴로 들어가 머리에서 太陽에 이르므로 寸部에서 徵候가 나타난다고 하였¹²⁴⁾ 따라서 衛氣가 睛明穴에서 나오지 못하여 생기는 陽蹻脈의 病理的 狀況을 氣口九道脈의 寸部에 左右彈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衛氣는 陰分을 순행할 때 足少陰腎經을 시작으로 陰分을 순행하며¹²⁵⁾, 陰蹻脈은 足少陰腎經의 別脈이다.¹²⁶⁾ 陰蹻脈의 순행은 足內踝를 지나며, 이는 足少陰經의 순행과 연관되어 있다.

『身經通考』에서 陰蹻가 머리에는 이르지 못하여 尺部에서 徵候가 나타난다고 하였¹²⁷⁾ 따라서 衛氣가 足少陰腎經을 통해 陽分으로 가지 못하는 陰蹻脈의 病理的 狀況을 氣口九道脈의 尺部에 左右彈脈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陰·陽蹻脈은 衛氣의 순행을 위해 作用하고¹²⁸⁾¹²⁹⁾,

10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109.
 11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1-572.
 111)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1.
 112) 李梴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 上』. 서울:大星文化社. 1994:179. “奇經 病非自生 蓋因諸經 溢出 而流入之也”
 113) 박건우, 황민섭, 윤중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나타난 彈脈의 의미에 關한 고찰 - 帶脈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35(1):33-42.
 114)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1-572.
 115) 황정일, 이준범, 황민섭, 윤중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關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22(4):166.
 116) 李濤 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此八脈之脈象, 病則見, 不病則不見”
 117)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15.
 118)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361. “衛氣之在于身也, 上下往來不以期,…”
 119) 王邦傳 纂注. 『珍本醫書集成·卷一·脉訣乳海』.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635-636.
 120)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136.
 121)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122)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359.
 123) 陳士鐸 著. 『外經微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1:28.
 124) 李濤 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125)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인문화사. 2014:360.
 126) 陳士鐸 著. 『外經微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1:28.
 127) 李濤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莫¹³⁰)은 “津은 衛氣를 따라 運行되며, ‘足太陽之筋’으로부터 始作하는 『靈樞·經筋』의 十二經筋은 衛氣의 運行과 聯關되어 있다¹³¹.”고 하였다. 또한 葉¹³²)은 “兩蹻脈은 人身의 側面을 走行하고, 筋을 主管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經筋』에서 足少陽之筋은 蹻脈과 並行한다.¹³³)

衛氣는 剛維群動과 知覺運動을 主官하며 寤寐에 있어 經絡의 出入을 관장한다.¹³⁴) 衛氣를 循環시키는 機能이 있는 陰·陽蹻脈은 寤·寐間에 手足으로 신속하게 氣를 運行하여 手足의 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순식간에 四肢와 頭面 즉 左右를 同時 및 先後가 없이 氣를 周行 및 還入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¹³⁵)¹³⁶).

『難經·29難』에서 陽蹻脈의 病證은 ‘陰緩而陽急’하고 陰蹻脈의 病證은 ‘陽緩而陰急’하다고 했다.¹³⁷) 특히 陽蹻脈과 陰蹻脈의 病證은 病態에 속한다. 이에 李¹³⁸)는 ‘癱瘓·瘕癥·寒熱·恍惚’로 陽蹻脈과 陰蹻脈의 病을 定形하고 陰陽의 觀點에서 分析하여 陰緩而陽急과 陽緩而陰急을 해석하였다.

『靈樞·經筋』에서 “經筋之病, 寒則反折筋急, 熱則筋弛縱不收¹³⁹”라고 하였고, 陰·陽蹻脈은 筋을 主官하고, 病은 緩急으로 나타난다¹⁴⁰). 經筋의 病證에 筋急과 筋弛縱 및 兩蹻脈의 病證에 陰緩而陽急, 陽緩而陰急의 病態는 모두 緩急으로 病證을 記述하고 있다.

緩急의 病證으로 보면, 陰·陽蹻脈은 五臟六腑에서 津液을 生成과 貯藏을 하고, 衛氣를 通하여 津液의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思料된다. 이를 통해서 行走坐臥의 群動

에서 經筋緩急 및 意識의 運用에서 情緒緩急의 病態를 寤·寐間의 睡眠을 통하여 調節하는 것이 陰·陽蹻脈의 기능으로 추정할 수 있다.

奇經八脈의 脈象이 나타나는 것은 邪氣가 있는 것으로 實症이라고 하였다¹⁴¹). 한편 『脈簡補義·奇經八脈體用病機治法』에서 “奇經의 모든 病에서 氣鬱, 畜熱의 有餘證은 治療가 쉽고 針砭이 最捷하며, 氣虛와 血損의 不足證은 難治로서 鹿茸, 龜板 등으로 治療해도 效果가 없으며, 단지 補法으로 配加하는 方法으로 治療하여야 한다.”¹⁴²)고 하였다.

그리고 『診宗三昧』에서 “邪氣가 十二經에 들어와도 넘치지 않으면 奇經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邪氣가 넘쳐야 만 奇經에 영향을 주고, 奇經의 病症과 脈象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그 奇經을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³)

이상을 보면, 診脈에서 平常의 脈象과 다른 特殊한 脈象이 發現되면, 奇經八脈의 脈診法 즉, 氣口九道脈을 운용한다. 특히 寸部와 尺部에 左右彈脈이 나타나면 陽蹻脈과 陰蹻脈이 각각 盛해진 상황, 즉 여러 病因에 의한 實症으로 診斷하고, 陽蹻脈과 陰蹻脈의 病證에 依據하여 針灸와 處方を 운용해야 한다.

역대 鍼灸醫書 중 『鍼經指南』¹⁴⁴), 『鍼灸大全』¹⁴⁵), 『鍼灸大成』¹⁴⁶), 『中醫針經寶典』¹⁴⁷)에서는 蹻脈의 病證과 隨證配穴이 記載되어 있다. 그러나 氣口九道脈診에 관한 記述은 없다. 『雜病源流犀燭』¹⁴⁸), 『奇經八脈考校注』¹⁴⁹), 『奇經證治條辨』¹⁵⁰)에서는 藥物을 이용한 治療를 제시하여 각각의 處

128)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醫學窮源集 卷2』.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2640.

129)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13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2.

131) 莫枚士 述. 『研經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4.

132) 葉霖 著, 吳考槃 點校. 『難經正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49-50.

133) 김기욱, 장재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118.

134)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135)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30. “蹻之爲言, 橋也, 通濟迅速(上通下濟, 迅捷快速) 而手足之氣運行不滯也... 爲之二蹻, 以頃刻周行于四肢頭面”

136) 裘莊元 輯, 熊芴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737.

137) 金경수, 송지역 譯. 『國譯 難經』. 서울:집문당. 2016:144. “陽蹻爲病 陰緩而陽急 陰蹻爲病 陽緩而陰急”

138) 李延星 輯著. 『脈訣彙辯』.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107.

139) 김기욱, 장재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영추』. 서울:법인문화사. 2014:125.

14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2.

141) 李濤 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172.

142)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571-572.

143)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點校. 『診宗三昧』.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15.

144) 竇杰 著, 康鎖彬 主編. 『診新針經指南』. 河北: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1.

145) 徐鳳 撰. 『鍼灸大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7.

146) 楊繼州 著, 靳賢 編, 洪波弦 譯. 『注解完譯 鍼灸大成』. 서울:도서출판 일취월장. 2016.

147) 王占偉, 仲任 主編. 『承門中醫針經寶典』. 台北:大展出版社有限公司. 2009.

148)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50)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方 및 藥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病證에 따른 運用法에 관한 기술은 없다.

이상은 氣口九道脈으로 寸과 尺部에 左右彈의 脈象이 나타나는 陰·陽蹻脈의 病態에 관한 診斷의 義意와 근거를 밝히는 연구로서 향후에 奇經八脈을 運用하는 針灸 및 藥物의 治療에 지표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IV. 결론

이상에서 陽蹻脈과 陰蹻脈에 병리 상황에서 나타나는 寸部和 尺部の 左右彈의 의미를 衛氣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 그 意義에 關하여 研究를 進行하였고,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左右彈脈이 寸部에 나타나면 衛氣가 陽分에만 머물러 睛明穴을 통해 陰分으로 가지 못하는 陽蹻脈의 병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脈象이다.
2. 左右彈脈이 尺部에 나타나면 衛氣가 陰分에만 머물러 陽分으로 가지 못하는 陰蹻脈의 병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脈象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陽蹻脈과 陰蹻脈은 衛氣의 晝·夜間 循環의 調節 및 寤과 寐間의 生·病理과 연관성이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윤종화 교수 연구기금 “한의학의 맥진법에 의거한 침구 및 처방을 병용하는 한의학적 근거중심의 임상치료법에 관한 연구”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참고문헌

1. 龔莊元 輯. 熊笏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본 황제내경 소문』. 서울:법민문화사. 2014.
3.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본 황제내경 영주』. 서울:법민문화사. 2014.
4. 금경수, 송지역 譯. 『國譯 難經』. 서울:집문당. 2016.
5. 唐宗海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宗海醫學全書』. 中西滙通醫經精義.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竇杰 著. 康鎖彬 主編. 『詮新針經指南』. 河北: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1.
7. (주)두산동아. 『동아백년옥편』. 서울:두산동아. 2011.
8. 盧敬之 著. 『脈學指南』. 서울:도서출판一中社. 1991.
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李延昆 輯著. 『脈訣彙辯』.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1. 李梴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 上』. 서울:大星文化社. 1994.
12. 李中梓. 『診家正眼』.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13. 李濬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3.
14. 莫枚士 述. 『研經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
15. 潘楫 著. 『医灯續焰』.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6. 徐鳳 撰. 『鍼灸大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7.
17. 신홍목 지음. 『장부경락학』. 서울:청흥. 2016.
18. 楊繼州 著. 靳賢 編. 洪渡弦 譯. 『注解完譯 鍼灸大成』. 서울:도서출판 일취월장. 2016.
19.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1.
20. 吳崑. 『脉語』.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2.
21.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醫學窮源集 卷2』.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2. 王德深 著. 『中國針灸穴位通鑑』. 青島:青島出版社. 1994.
23. 王邦傳 纂注. 『珍本醫書集成·卷一·脉訣乳海』.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24.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
25. 王占偉, 仲任 主編. 『承門中醫針經寶典』. 台北:大展出版社有限公司. 2009.
26.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27. 張志聰 著.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8.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上

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29.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30. 周學海 著. 白上龍 評註. 『評註讀醫隨筆』. 서울:집문당. 2014.
31. 陳士鐸 著. 『外經微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1.
32.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3.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學苑出版社. 2010.
34. 박건우, 황민섭, 윤중화. 「奇經八脈의 脈診법인 氣口九道脈에 나타난 彈脈의 의미에 관한 고찰 - 帶脈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35(1):33-42.
35. 박찬열, 안병철, 최도영. 「陰, 陽蹻脈과 陰, 陽維脈各 經穴의 主治病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5;12(2):287-315.
36. 이경민, 김태희, 정성엽, 조윤철, 김철수. 「陰蹻脈, 陽蹻脈과 睡眠과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대한추나의학회지. 2002;3(1):141-151.
37. 황정일, 이준범, 황민섭, 윤중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22(4):166.
38. 于志亮, 杨 硕, 杨孝芳. 「“气口九道脉”的溯源初探」. 中西医结合心血管病杂志. 2018;6(34):27.
39. 成振镛, 李晓君, 郭霞珍. 「奇经脉诊法初探」. 北京中医药大学学报. 2010;17(6):24-26.